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인플레이 둔화 지속된다... 8월에 2.5% 기록
- NYT: 작년 미국 소득 증가 불구 빈곤 비율은 늘었다

### [미국 금융]

- WSJ: 연준 큰 폭 금리 인하 '가능성 닫혔다'... 오늘 근원 인플레이 예상보다 높아
- Bloomberg: 30년 미 모기지율 작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미국 대선]

- Bloomberg: 해리스 어젯밤 토론에서 우세
- Bloomberg: 트럼프와 해리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언급

### [오일]

- Bloomberg: 유가 60불로 떨어지면 글로벌 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

### [인공지능]

- CNBC: 중국 AI, 미국보다 최소 반년 뒤쳐져있지만...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미국 항공사들, 지연 운항에 곧 벌금 부과될 듯
- WSJ: 회사명 Cambell Soup에서 Soup 빠진다
- Bloomberg: 맥도날드, 계산대 직원 줄이는 방안 시도
- CNNBusiness: 아마존, '노프릴' 식료품으로 Aldi와 Target 공략

###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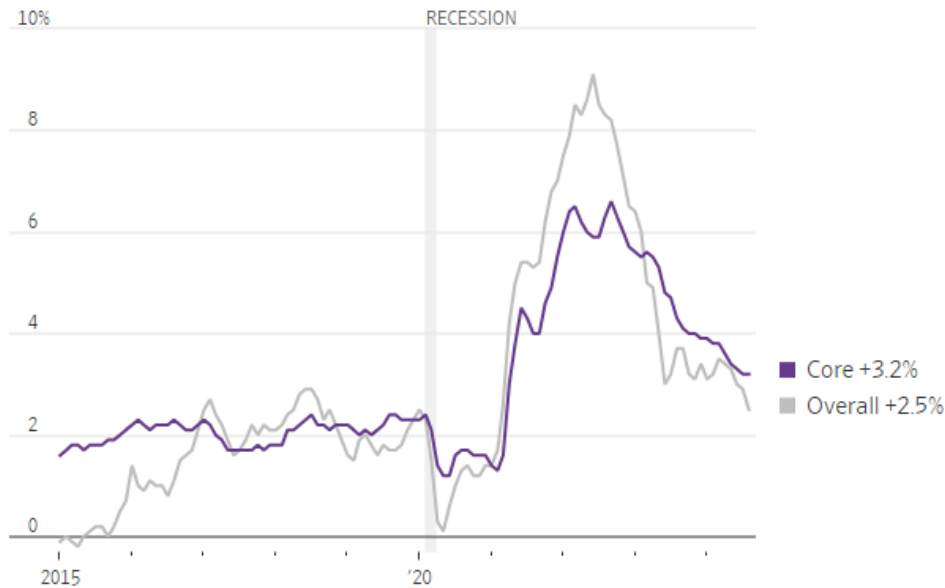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WSJ: Inflation Extends Cooling Streak to Hit 2.5% in August**  
인플레이 둔화 지속된다... 8월에 2.5% 기록

- 미 인플레이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되어 다음 주부터 연준은 회의를 통해 금리를 점차 내릴 가능성이 높다.
- 8월 인플레이가 작년 동월에 비해 2.5%로 하락했다고 연방 노동부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7월의 연율 2.9%에서 하락했으며 냉각기간이 5개월 연속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 예상치는 2.6%였다.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3.2%를 유지했다.
- 그런데 예상보다 강한 8월의 핵심 물가지수를 높인 주택 관련 인플레이 때문에 연준 관리들이 다음 주 회의에서 0.5% 금리 인하는 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늘 수요일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욱 완만해질 것이라는 베팅을 키우고 있다.

Consumer-price index, change from a year earlier



Note: Core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Source: Labor Depar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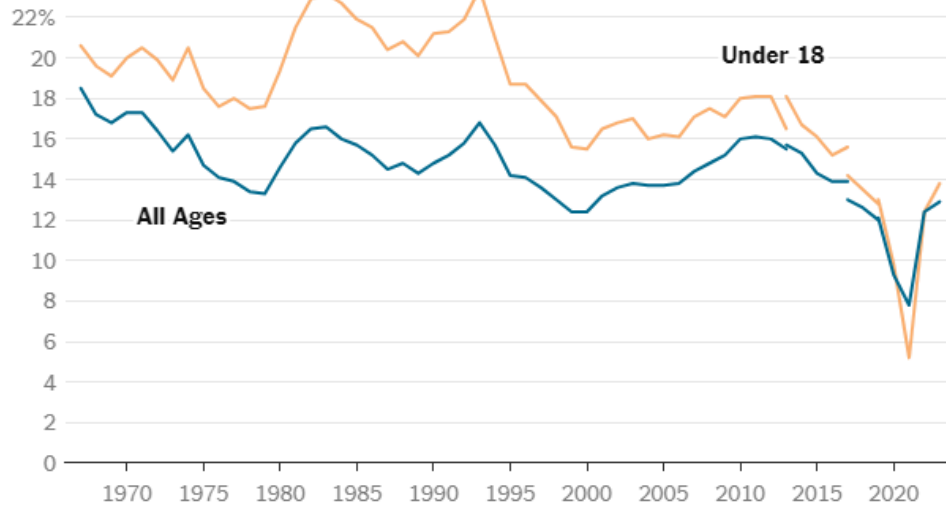
WSJ 기사

**NYT: Poverty Increased in 2023 as Prices Rose and Pandemic Aid Programs Expired**  
작년 미국 소득 증가 불구 빈곤 비율은 늘었다

- 어제 발표된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소득은 증가했지만, 미국의 빈곤율은 증가했다. 이는 물가가 높고 지난번 팬데믹 당시 긴급 지원 프로그램 효과가 끝났기 때문이다.
- 이른바 빈곤층에 속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지난 2022년 12.4%에서 지난해 12.9%로 상승했다. 그리고 인플레이를 감안한 미국인들의 가구 중간 소득은 8만6백10불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 임금이 상승했지만, 높은 인플레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 비율이 올라간 것이다.
- 여기다 팬데믹 지원금과 추가 실업보험수당 지급, 저소득층 세금 공제 연장 프로그램이 중단되면서 작년에 빈곤율이 상승했다.

### Poverty Rebounded Sharply in 2022 and 2023

As pandemic aid expired and prices rose, the share of Americans living below the poverty threshold went back up.



Data is the "supplemental" poverty rate, which accounts for taxes and subsidies. Gaps in data are because of changes in Census Bureau methodology. • Source: Columbia Center on Poverty and Social Policy analysis of U.S. Census Bureau data • By The New York Times

NYT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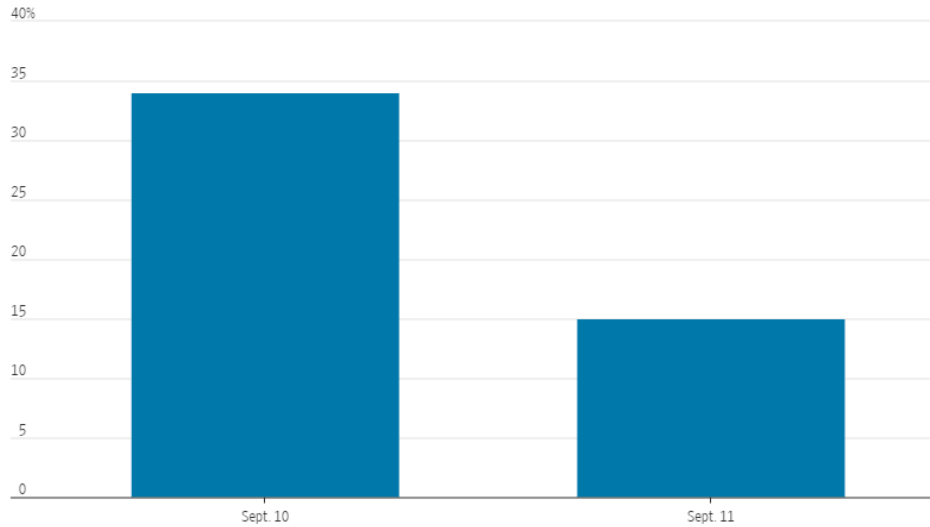
### [미국 금융]

## WSJ: Inflation Data May Have Closed the Door on a Bigger Rate Cut Next Week

연준 큰 폭 금리 인하 '가능성 닫혔다'... 오늘 근원 인플레 예상보다 높아

- 오늘 수요일 발표된 예상보다 높은 월간 핵심 물가지수로 인해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다음 주에 0.5%의 큰 폭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CME 그룹에 따르면 다음 주에 예상보다 높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제 화요일 34%에서 15%로 줄어들었다고 금리 선물은 시사하고 있다.

Futures-implied chances of a 0.5-percentage-point rate cut in Sept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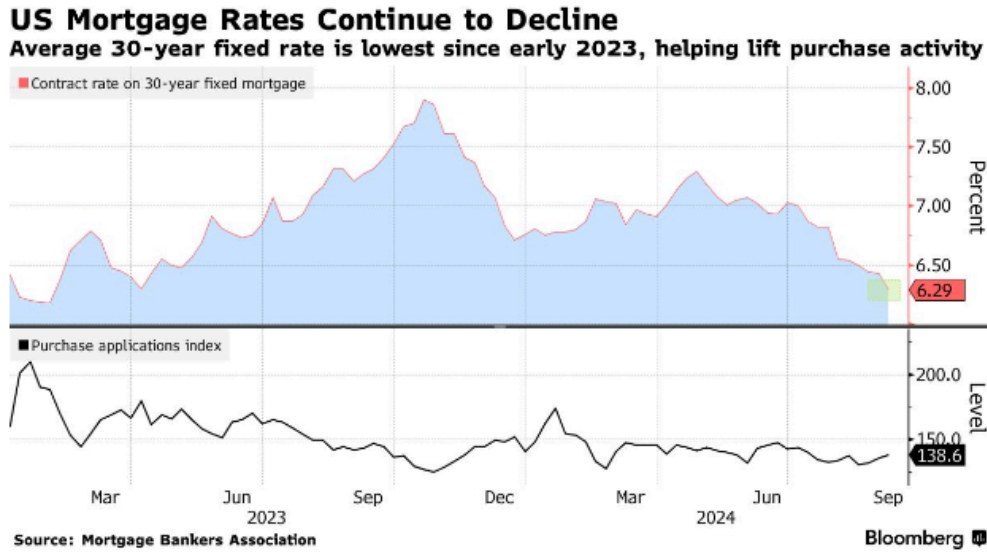
Source: CME Group

WSJ 기사

### Bloomberg: US 30-Year Mortgage Rate Slides to Lowest Since February 2023

#### 30년 미 모기지율 작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

- 지난주 미 모기지율이 지난 2023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 구입자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으며 채용자 신청도 늘었다.
- 9월 6일 끝나는 주의 30년 주택모기지율이 14 베이스 포인트 줄어든 6.29%를 기록해 지난 6주 연속 하락했다고 모기지은행협회 자료는 오늘 수요일 밝혔다.
- 이 같은 모기지율 감소로 인해 이 협회의 주택 구매 신청 지수는 1.8% 상승해 거의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채용자 신청 건수도 0.9% 상승해 지난 2022년 5월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Bloomberg 기사

### [미국 대선]

#### Bloomberg: Harris Dominates as Trump Gets Defensive: 6 Takeaways From the Debate

#### 해리스 어젯밤 토론에서 우세

- 크게 보았을 때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미끼를 던져 이를 물도록 유도하고 트럼프의 뒷발도 묶어 두면서, 해리스 자신의 취약점에 대한 계속된 관심을 피해 나갔다는 평가다.
- 이들은 낙태와 경제, 이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날카롭게 이견을 보였다. 트럼프의 경우는 방어적이었다.
- 해리스는 함정을 만들었고 트럼프는 그 함정으로 들어갔다. 트럼프는 향후 2번째 임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보다는 팬데믹 때 자신의 대처, 군사 고문 해고 결정 등 자신의 과거 대통령으로서 했던 일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 했다.
- 해리스는 낙태 이슈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으며’, 트럼프는 해리스를 싫어하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 트럼프는 당초 해리슨을 바이든의 인기 없는 정책으로 한가지로 연결시키려는 목표를 가졌으나 이를 이루지 못했다. 해리슨도 원유 프래킹 입장 등 일부 이슈에 대해 소극적으로 답변을 했다.

### Bloomberg 기사

#### **Bloomberg: Trump and Harris' Debate Remarks on Economic Policy, Fact-Checked** 트럼프와 해리슨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언급

- 해리슨은 트럼프가 해외 상품에 대해 관세를 물리겠다는 입장에 대해 이는 '트럼프 판매세'라면서 결국 증산층이 보상해야 할 비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의 주장대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많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더 많은 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 트럼프는 바이든의 임기 중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했는데 이는 팬데믹의 결과이며 트럼프의 일자리 확충 기록도 팬데믹 전에 37개월 동안의 평균보다 더 좋지는 않았다.
-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중에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했으나 그의 재임 중이던 2018년에 인플레가 2.9%로 상승했다.
- 예산 관련해 해리슨은 트럼프의 예산안이 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말했는데 향후 10년간 트럼프의 계획은 1조5천억 달러의 적자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슨은 경우는 같은 기간 2조달러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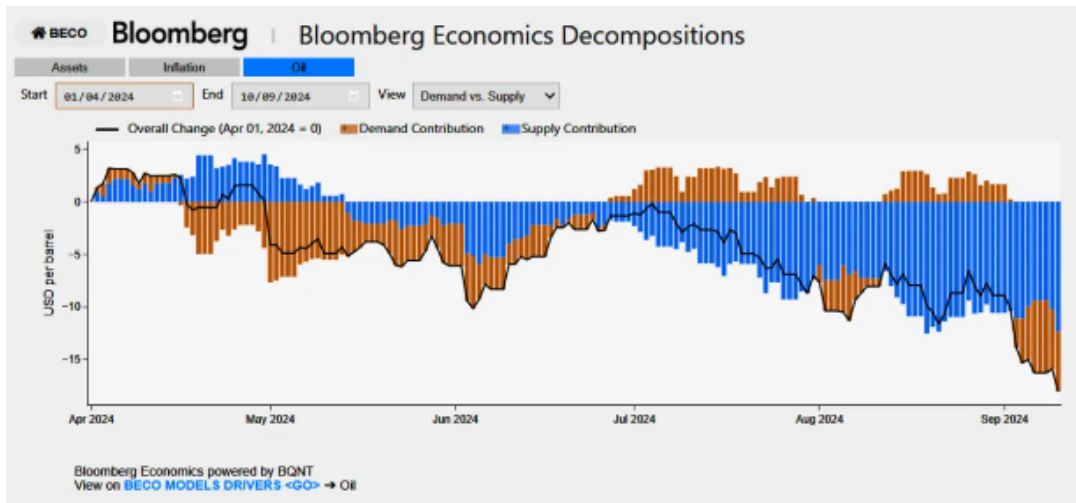
### Bloomberg 기사

#### [오일]

#### **Bloomberg: Oil's Fall Into \$60s Widens the Runway for the Global Economy to Make a Soft Landing** 유가 60달러로 떨어지면 글로벌 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

- 지난 화요일 브렌트유가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JP모건과 씨티그룹 분석가들은 수요 증가세를 새로운 공급이 압도하면서 2025년까지 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유가 하락은 글로벌 경제에 몇개 없는 긍정적인 신호다.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td 경제학 책임자 Tim Drayson은 “전 세계 금리가 다시 하락하고, 중앙은행이 중립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연준 이사회는 일주일 이내 완화 정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재무장관 Janet Yellen은 “사람들이 연착륙이라고 부르는 상황”이라고 선언했다.
- 파리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세계 석유 생산량은 하루 150만 배럴씩 증가해 세계 수요 증가율을 약 50%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SHOK 모델에 따르면 이 정도로 유가가 하락할 경우 2024년 말과 2025년 초에 미국과 유럽 인플레이션율이 0.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그 절반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LGIM의 Drayson은 선진국 소비자에게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Bloomberg 기사

### [인공지능]

#### CNBC: China's AI models lag their U.S. counterparts by 6 to 9 months, says former head of Google China 중국 AI, 미국보다 최소 반년 뒤쳐져있지만...

- 전 구글 중국 책임자 Kai-Fu Lee가 중국 AI 모델이 미국보다 반년 이상 뒤쳐졌지만,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Lee는 “좋은 AI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습 비용이 크게 떨어졌다. 검색 앱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슈퍼 앱으로 발전하는데 5~8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주요 중국 기업들도 AI 모델과 비즈니스 제품을 출시하거나 여러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요일, 알리바바 계열사 Ant 그룹이 지원하는 ShengShu 테크놀로지는 자사의 텍스트-비디오 모델 Vidu에 AI가 만든 클립을 왜곡 없이 일관되게 묘사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US Airlines May Soon Face Cash Penalties for Delayed Flights**

#### **미국 항공사들, 지연 운항에 곧 벌금 부과될 듯**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항공사들이 통제 가능한 취소 또는 3시간 이상의 지연 사태에 대해 승객에게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는 항공편이 중단된 승객에게 식사와 숙박 외에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 EU에는 20년 전부터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 EU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는 통제 가능한 취소 및 지연에 대해 비행 거리에 따라 275~660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유럽 소비자 권리 단체 AirHelp의 CEO Tomasz Pawliszyn은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이미 지연 보상 규정이 있다.
- 미국 항공사에 대한 불만은 지난 4년 동안 4배 증가해, 2023년 최고치인 6만1천여건이 접수됐다. 미국 공익 연구 단체(US Public Interest Research) 소비자 감시 책임자 Teresa Murray는 “2023년 승객 수는 11% 증가했는데, 불만은 29% 증가했다. 불만 중 35%는 항공편 문제, 20%는 환불, 16%는 수하물 관련 문제였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WSJ: Campbell Drops Soup From Its Name, Not Its Pl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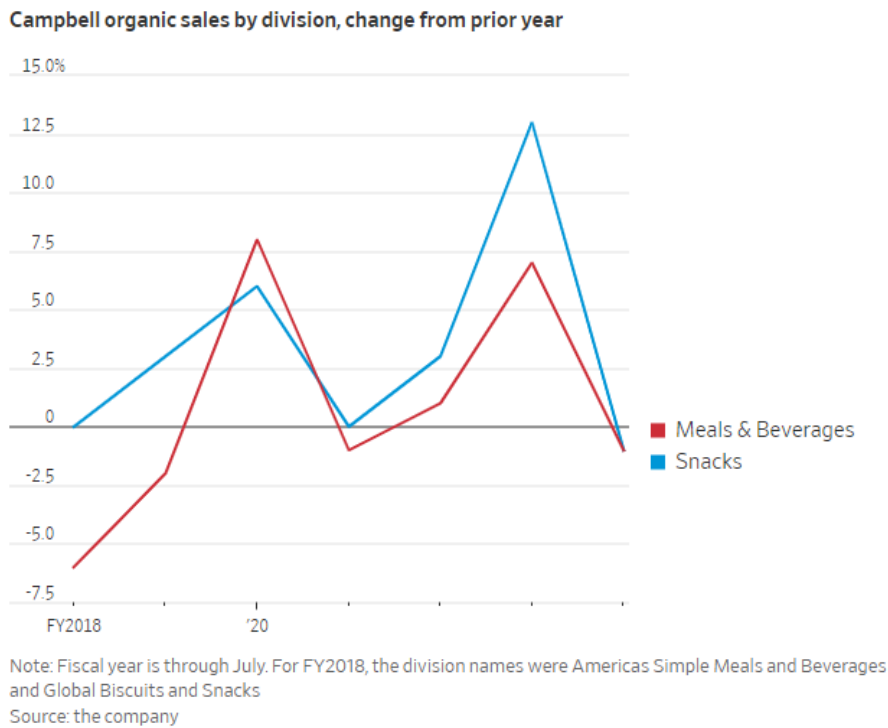
#### **회사명 Cambell Soup에서 Soup 빠진다**

- Campbell 최고 경영자 Mark Clouse는 주주들에게 사명을 Campbell Soup Company에서 The Campbell's Company로 바꾸는 것을 승인해달라고 요



청했다. Campbell 매출의 거의 절반은 과자류에서 발생한다.

- 캠벨은 성장 알고리즘에 내에서 과자류는 연간 3~4% 성장을, 식음료 부문은 연간 1~2%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Campbell이 수프 부문을 버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 Rao's pasta-sauce 브랜드를 인수했으며, 젊은 소비자들을 노린 새로운 매운맛을 출시하고 있다. 저염 수프 제품인 Healthy Request 라인도 개선하고 있다.
- Clouse는 “회사가 수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시키고 싶었다. 나는 수프 부문에도 성장 여력이 있고, 그것이 회사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WSJ 기사

### Bloomberg: McDonald's Rolls Out Kiosks That Take Cash, Pushing Diners Away From Cashiers 맥도날드, 계산대 직원 줄이는 방안 시도

- 맥도날드는 현금을 받고 거스름돈을 줄 수 있는 키오스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계산원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음식을 가져다주는 테이블 서비스나 길거리 픽업 같은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맥도날드는 이러한 변화가 고객의 디지털 옵션 요구를 만족시키고, 속도와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주문이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를 어떻게 재편하는지 보여준다.
- 팬데믹 이후 앱, 배달, 키오스크 주문은 작년 3분기 상위 시장에서 맥도날드 매출의 40%를 차지했다. 키오스크는 주문 속도를 높여주고, 앱 사용자들은 포인트를 받고 더 자주 방문하거나 추가 메뉴를 주문하는 경향이 있다.

#### Bloomberg 기사

### CNN Business: Amazon targets Aldi and Target with a new lineup of 'no-frills' groceries

#### 아마존, '노프릴' 식료품으로 Aldi와 Target 공략

- 아마존은 브랜드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고객들을 위해 Aldi와 Target처럼 저렴한 식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격이 5달러 미만인 '노프릴' 개인 상표 브랜드 Amazon Savor를 출시할 예정이다. 노프릴은 불필요한 추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 몇 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고객들의 식료품 소비 습관이 변했다. 브랜드에 따라 비슷한 품목도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걸 선호한다. GlobalData Retail의 소매업 분석가 Neil Saunders는 "고객들은 단순히 저렴한 게 아니라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원한다. Savor가 합리적인 품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아마존은 화요일부터 연간 139달러 멤버십인 프라임 회원에게 더 많은 식료품 할인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프라임 회원은 매주 변경되는 8~15개의 식료품 품목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Savor 제품 라인업에 추가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CNNBusiness 기사

### 이번주 나올 美소비자·생산자 물가, 금리인하 폭 좌우한다 9 월 0.25%p 인하 전망 우세...11 월 0.5%p, 12 월 0.25%p 인하 예상 물가지표 예상보다 낮을 경우 '빅컷' 가능성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주 나오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금리인하 폭을 결정하는 데 막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경우 연준이 0.5%포인트 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리 옵션시장에서는 내년 1 월 말까지 남은 4 번의 금리 결정 회의에서 적어도 두 번의 빅컷(0.5% 포인트 인하)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